

영암도포초, 마을과 함께 에듀테크로 '전남 義정신'을 기르다

영암 의병장 양달사 장군 주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3~4학년 학생 대상, 장독골 샘터 및 영암읍성 터에서 실시

영암도포초등학교는 지난 11월에 교내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암의 인물 양달사 장군의 義로움 알기'라는 주제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우리 마을 위인 알아보기 활동을 도포면 내 양달사 시묘공원, 영암읍 내 장독골 샘터 및 영암읍성 터에서 운영하였다.

먼저 도포초 학생들은 사전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양달사 장군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묘왜변, 시묘살이 등)에 대해 마을학교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활용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체험학습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체험학습 당일에는 양달사 시묘공원을 시

작으로 마을학교가 섭외한 영암군청 역사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시묘 공원의 뜻과 양달사 장군이 의병을 일으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영암읍 장독골 샘으로 이동하여 장독골 샘의 형성 유래를 통해 당시 나라를 지키려 분연히 일어난 양달사 장군과 지역 의병들의 의로움에 대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아직 복원 과정 중에 있는 영암읍성 터를 둘러보며, 옛날의 지역의 모습을 떠올리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체험학습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같은 날 학교에서 사후활동으로 A.I.를 활용해 양달사 장군의 활약을 담은 4컷 웹툰을 제작하였고,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 엔트리를 활용해

양달사 장군 업적 관련 퀴즈 게임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에듀테크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 교육으로 미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포초 4학년 최○○ 학생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즐거웠고, 돌아와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음에도 지역에 숨겨진 또 다른 역사를 알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한 마을학교 관계자 또한 "영암에 태어나서 나고 자랐지만, 지역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는 줄을 이번에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 지금 1년간 다양한 지역 관



련 체험프로그램을 도포초와 함께 운영하면서 마을교육활동가인 나 또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상두 도포초 교장은 "도포초 학생들이 이러한 지역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전남 義정신과

애랑심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남 義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도포초만의 특색 있는 마을 연계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흡연·마약 예방캠페인



전라남도교육청이 수능 이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마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2일 남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흡연

및 마약류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 이후 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최근 살 빼는 약, 각성제 등으로 위장한 불법 마약류가 청소년에게까지 깊이 침투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에서 도교육청의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안내 및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교육공동체의 건강 의지를 나눴다. 김수권기자

목포대성초, 2022개정교육과정 대비 로봇교육 연수 실시



지난 16일, 목포대성초는 학생들이 미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기 위한 '레고스파이크프라이밍 활용 수업 연수'를 실시했

2022 개정교육과정 대비 SW&로봇교육 교사전문성 향상

다.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일환인 본 연수에는 목포대성초 소속 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총 10명의 선생님이 참석한 교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수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연수에서 연수생들은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의 기본 부품을 모두 탐색하며 SW, 로봇 내용을 적용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 금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원리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2022개정교육과정의 '삶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교사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김한나 교사는 "로봇교육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본교에 갖춰진 장비를 활용해 쉽게 SW, 로봇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진도조도초병설유치원, 저녁 돌봄교실 운영

진도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3. 공립유치원 공모 돌봄교실을 신청하여 편안한 습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기존 유치원 운영 시간인 9:00~17:00에서 1시간이 연장된 18:00까지 운영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 맡길 수 있게 되어 본업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 또한 친구들과 편안한 환경에서 쉬고 놀이를 경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상하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하원 후 스마트폰만 사용하였는데 저녁 돌봄교실을 통해 친구들과 충분히 놀이하고 울



수 있어 좋다. 방학 중에도 저녁 돌봄이 동일하게 운영되어 하원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의 학부모는 "매일 신선한 계절 과일 및 빵 등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간식을 제공한 점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진도=조상용기자

순천왕조초, 권오준 작가와 함께하는 생태 독서 책마당 성료

3~4학년 학생 대상 운영

순천왕조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시청각실에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책놀이를 통한 생태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2023. 「권오준 생태대화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하였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학교 중점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기-토론하기-작가와 만남-책놀이」 등 통합적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3학년은 「사계절 생태캠핑」, 4학년은 「날아라 뱀뱀아」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에서는 △ 작가

가 읽어주는 책 △ 책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작가와의 소통 △ 작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 작가 사인회 등 자연과 생태에 대한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한 3학년 김신영 학생은 "작가님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며, "작가님의 다른 책도 도서관에 찾아 읽어 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임덕희 교장은 "순천왕조초의 통합 독서활동 및 생태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아름다운 생



태 감수성을 지닌 순천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